가을 이사철 ‘무색’…이사업체 일감 ‘뚝’

광주 주택 매매량 하락에 이사·도배·장판 업체들 ‘울상’
올 9~10월 이사건수 전년비 40% 급감 “직원들 생계 막막”

이사할 때 불운이 없다고 해서 ‘손 없는 날’로 불리는 7일 오전 북구 신안동의 한 이삿짐센터. 이곳의 대표 최성진(47)씨는 가을 대목임에도 이날 대기 중인 4개조 중 2개조에게만 일감을 줄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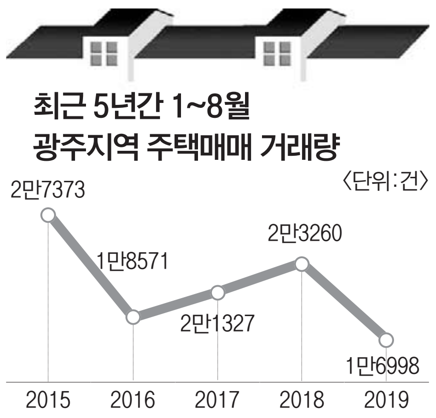
최 대표는 “가을 이사철이 왔지만 올해는 일감이 없는 탓에 직원들에게 번갈아 일을 나가게 한다”며 “5t 트럭 한 대 기준 이사가격은 평균 100만원 정도지만 의뢰건수가 많지 않은 날에는 90만원으로 낮춰 일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곳곳에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주택 매매가 뚝 끊겼고, 이로 인해 이사업체, 도배·장판업체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7일 광주화물주선협회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는 120개의 이사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협회 측은 “올해 9~10월 가을철 이사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40% 급감했다”며 “주택 매매가 줄면서 가을 특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고 업황을 전해왔다. 올해 들어 2개의 이사업체가 문을 닫기도 했다.

협회 측은 광주지역 이사업체 5명 중 2명 꼴은 가족 단위로 일하고 나머지는 용달 기사와 날품을 파는 1인 사업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을철 이사를 보기 힘든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찾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광주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69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3260건)과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각 26.9%, 25.1% 감소했다. 지난해와 비교한 광주지역의 거래량 감소폭은 전국(21.0%) 평균보다 5.9%포인트 높았다.

도배·장판·타일 업체 등도 줄어드는 이삿일에 민감하긴 마찬가지다. 타일 시공을 하는 김모(35)씨는 “기존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면서 지난 달에는 딱 보름 정도만 일했다”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감이 70%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차윤오(45) 광주화물주선협회 상무는 “이사비용을 절반 가까이는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사가 줄면 업체 인력들의 생계가 가장 먼저 걱정”이라며 “광주에서 활동하는 120개 이사업체 가운데 20~30곳은 업종을 전환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포장이사 업체 직원의 인건비는 1일 남성 15만원, 여성 10만~12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 정도 인상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NCS 기업 컨설팅사업 보고회
광주상의, 활용 지원나서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7일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컨설턴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회〈사진〉를 열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이다.

광주상의는 올해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NCS 컨설팅을 진행해 기업별 직무분석과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지원했다. 또 맞춤형 채용 프로세스와 채용도구를 개발해 능력 중심의 인적자원 확보 및 운용기반을 구축,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활활 타오르던 광주 경매 시장 9월 들어 ‘주춤’
낙찰률 -6.2%p·낙찰가율 -14.3%p 전달보다 급락

열기가 뜨거웠던 광주 경매시장이 주춤하고 있다. 지난 8월 조정기를 맞이하고도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던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9월 각각 42.3%, 66.5%로 전달보다 -6.2%포인트, -14.3%포인트 급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7명으로 인천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주거시설 낙찰률은 전월 대비 3.8%포인트 오른 52.1%를 보이며 활기를 유지했다. 8월 50%에 근접했던 업무상업시설의 낙찰률은 21.1%로 급락했고 낙찰가율도 61.8%를 기록, 7월(100%)과 8월(75.6%)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전국 1위를 기록했던 토지 낙찰가율은 9월에도 154.2%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전국 1위 자리를 지켰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소재 공장이 32억원에 낙찰되면서 광주지역 최고 낙찰가를 썼다. 서구 화정동 소재 아파트에 21명의 응찰자가 몰려 광주 지역 최다 응찰자 물건에 올랐다. 남구 주월동 소재 대지는 16명이 입찰 경쟁을 벌여 무려 331%의 낙찰가율을 기록했고, 광산구 운남동 소재 아파트에도 16명이 입찰서를 제출했다.

전남 경매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8월 전국 최고 낙찰률을 기록했던 전남은 9월 들어 낙찰률이 5.4%포인트 감소했다. 낙찰가율은 2.8%포인트 오른 67.7%로 전국 평균에 근접했다.

주거시설 낙찰률은 전월 대비 25.8%포인트 급락했지만, 낙찰가율은 80% 선을 유지했다. 이는 7월 전국 최하위권으로 내려 앉았던 낙찰률(22%)을 8월 들어 단숨에 79.6%까지 끌어올렸던 것에 대한 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업시설 낙찰률은 전월 대비 6.1%포인트 올랐지만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는 못했고, 토지 낙찰률은 8.4%포인트 오른 50.7%로 집계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소재 병원이 30억원에 낙찰되면서 전남 지역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

2위도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소재 병원으로 26억원에 낙찰됐다.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소재 대지에 36명이 몰려 전남지역 최다 응찰자 수를 기록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21.73 (+1.04)	↑ 금리(국고채 3년)	1.23 (+0.02)
↑ 코스닥	627.21 (+5.37)	↓ 환율(USD)	1196.60 (-0.20)

재난지원금 이중 지급 전남 가장 많다
농작물재해보험금과 중복 53개 농가·6300만원 환수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이중 지급돼 환수돼야 하는 금액이 전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을)이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2017년 3년 동안 중복 지급돼 환수 조치해야하는 재난지원금은 전남 1억760만원(70개 농가) 등 총 3억4590만원(141개)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환수대상 금액은 전체의 31.1%로 전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았다. 시군별로 보면 신안군이 45개 농가 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광 1200만원(9개) ▲해남 1000만(4개) ▲장성 850만(2개) ▲함평 850만(5개) ▲영암 550만(2개) ▲순천 350만원(3개)이 뒤를 이었다.

개별농가별로는 적게는 116만원(순천)에서 많게는 275만원(영암)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남지역 53개 농가에서 6300만원의 중복 지원금이 환수됐다. 환수 대상 금액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58.8%) 걷혔다.

오 의원은 “농식품부와 행안부의 ‘재난지원금’과 농식품부 ‘재해보험금’이 중복 지원돼, 재난지원금을 이중 지급된 만큼 환수해야한다”며 “두 주무부처가 이달 중에 연계 시스템을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가동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태양광발전 10곳 중 6곳 계통 안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계통연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발전소 운영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지역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0곳 중 6곳이 계통되지 않았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태양광 계통연계 신청건수는 9만6740건이다. 이 중 계통연계가 완료된 시설은 5만4787건으로 56.6%에 그쳤다.

같은 기간 풍력은 205건 계통연계 신청이 접수돼 59건(28.8%)만이 계통연계가 이뤄졌고, 바이오는 106건 중 51건(48%), 폐기물은 65건 중 34건(52%), 연료전지는 84건 중 26건(31%) 등 신재생에너지 대부분의 계통연계 실적이 저조했다. 반면, 수력은 72%에 달했다.

특히 전남지역의 계통연계 실적이 미흡했다. 전남은 1만8737건 중 38.6%인 7230건만이 계통이 완료돼 태양광발전 설비를 운영 중에 있다. 풍력은 41건 중 8건(19.5%), 바이오는 8건 중 1건(12.5%), 폐기물은 6건 중 1건(16.7%), 연료전지는 13건 중 2건(15.4)만이 계통연계가 완료돼 신재생에너지 대부분이 10%대에 그쳤다.

이용주 의원은 “계통문제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 수많은 대안이 나와 있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면서 “전문가와 정부, 업계 모두가 모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국세청 “7~9월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이 법인 사업자 94만명을 상대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받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예정 신고된 88만명 보다 6만명 증가했다.

7일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산금(3%)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휴업을 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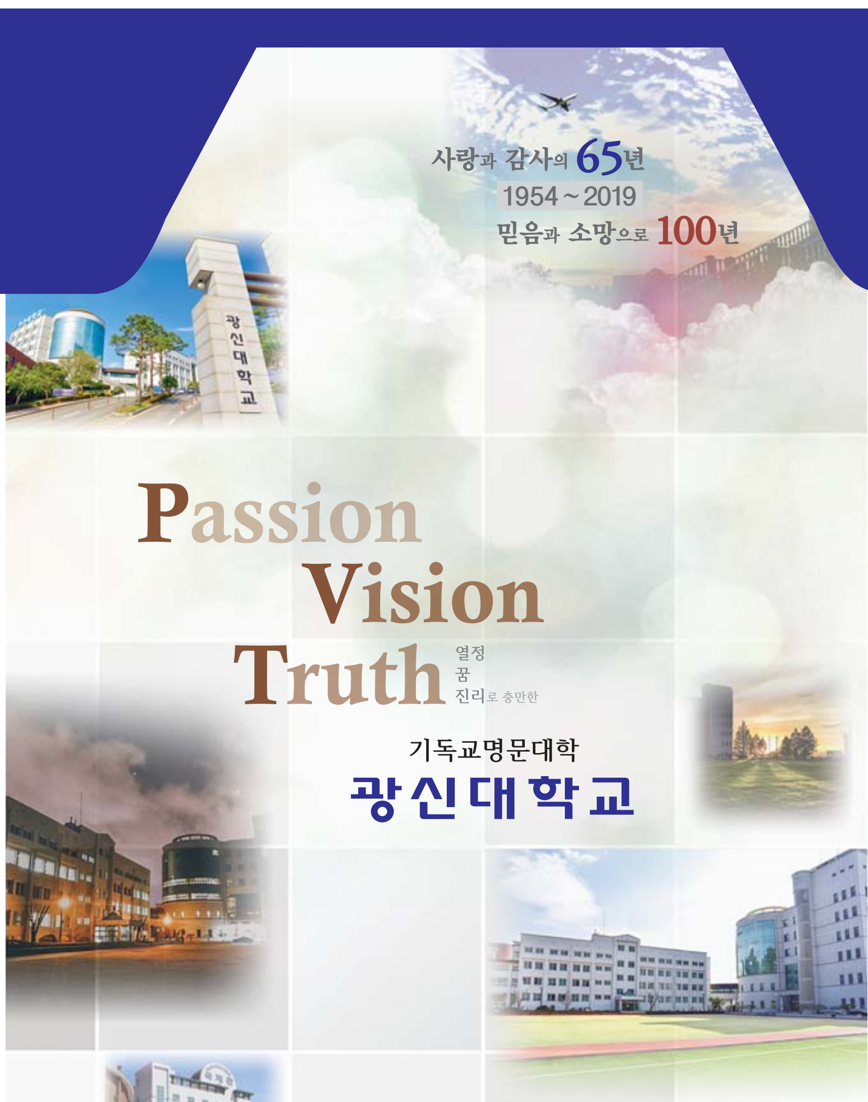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집단위)	정 시 (모집인원)
인 문	신 학 과	15
인 문	한국어교육학과	2
사 범	유아교육과	3
사 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실 용음악학 전공)	5
총 계		28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 형 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7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치료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치료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추후 공지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